

사설

세상 밝히는 등불이 되자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는 등 달기 운동이 사방에서 전개되고 있다. 마음의 어두움을 없애려는 소박한 마음에 현실적인 실존을 공고하게 하려는 구복까지 다양한 인간들의 마음이 교직(交織)되어 밝아늘을 수놓는 연등으로 탄생한다.

서 드러나고 있다. 이라크 난민 돕기를 비롯하여 독거 내지 저소득층 생활자 위로 잔치, 양노원이나 장애인 시설, 기타 많은 복지시설 방문 등등. 그러나 불교도의 등 달기가 일회성이거나 충동적이어서는 안 된다. 세상의 어둠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소외받은 이웃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마음의 등을 달아야 하는 것이다.

인고와 어둠으로 상징되는 사바세 계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 등불을 밝혀야 한다. 살다보면 때로는 비바람도 불고 찬 서리도 내리게 마련.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역시 무상한 세계 속에서 순간에 불과한 것이므로 절망보다는 희망과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야 한다. 나이가 이웃을 위해 작은 나뭇잎이라도 실컷 할 수 있는 여유를 지녀야 한다.

세상에는 나와 남이 있을 수 없다. 그대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며, 그대의 불행이 나의 슬픔일 뿐이다. 한 세상을 살며 함께 호흡하고, 같은 대지를 밟고 마주 서 있다. 이것 보다 소중한 것이 또 있을 수 없다. 축제를 앞에 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웃과 함께 잠입할 수 있는 초파일이 되도록 어두운 이웃을 위해 등을 밝혀자.

마음의 등불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자 하는 불제자들의 노력이 곳곳에

문화재청 승격 연기 유감

“옳은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국회 문화관광위 간사 고홍길 의원(한나라당)이 21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발언이다.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 관련 법안을 의원발의 했던 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재난청 신설 문제와 함께 다룬다”는 결론이 나와 서운한 마음을 가누며 이같이 말했다.

물론 6월에 성사될 조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의 성격과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닐까 하는 노파심은 가늘 길어졌다.

현재 문화재청은 각종 행정명령과 국토개발에 있어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여야 하는 등 1급청으로서의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문화재청의 승격은 국가의 문화재 정책에서 비롯되는 역사 문화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힘을 실어 줄 사안이다. 도난과 자연재해에 무작정 노출되어 있는 문화재들의 보호 업무도 더 과학적이고 포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은 문화재의 관리와 발굴, 교육을 비롯한 행정의 중요성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된다. 때문에 불교계와 문화관련 시민단체들이 화수고대하는 사안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이 문제를 6월로 미뤄 버린 것은 못내 아쉽다.

비록 이번 법안심사에서는 ‘연기’되었다 하더라도 6월 임시국회에서 는 여야를 막론하고 문화재청의 승격을 긍정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깨달음에 출·재가 구분 없다”

첫 재가자 무차대회, 한국불교 정체성 진단등 의견 쏟아져

사찰재정·교육위원회 구성

재가자도 교육·포교 동참해야

“조계종은 출가 중심, 비구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재가자들의 참여가 극히 제한된 현재의 구조는 사부대중의 역량을 결집시키지 못하고 재가의 조직 침체나 역할 저하 등의 폐해를 부르고 있습니다.”

19일 ‘한국불교, 재가는 없다’는 주제로 열린 재가불자 무차대회에서 ‘발계에 나선 최연 중앙인도회 사무총장은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출·재가의 바람직한 관계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황국근) 창립 37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날 재가불자 무차대회는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의견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의 재가자 무차대회였던 이날 행사는 이육태 부산불교교육대학 교학처장의 ‘한국불교의 정체성 문제’ 자명스님(마하보리사 주지)의 ‘불교 수행의 문제’ 광만연 동시대 교수의 ‘비밀직한 신도교육을 위하여’ 등의 조직, 교육, 수행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200여명의 재가자들에게 자유 토론의 기회가 주어졌던 이번 무차대회에서는 출가자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어 버린 수행과 깨달음의 문제를 재가를 비롯한 사부대중의 과제로 인식하기 위한 재가자들의 자기반성의 목소리도 높았다.

광만연 동시대 교수는 “사찰재정위원회 사찰교육위원회 등을 구성, 재가자들이 포교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재가 불자들이 전문성을 살려 시민운동,

환경운동 등 불교적 가르침을 사회에 실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자명스님과 지울스님은 “출가 재가의 구별은 따로 있지 않다. 다만 수행의 정신이 중요할 뿐”임을 강조하고 “기독교, 불교, 출가, 재가를 나누기 이전에 부처님의 정신, 깨달음의 정신을 인식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불청 부산지구는 이번 무차대회가 방대한 주제 선정으로 깊이 있는 접근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수용, 내년부터는 주제를 세분화해서 재가자 무차대회를 연례 행사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부산=천미희기자

외국인포교사 제도화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밝혀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포교사를 육성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18일 서울 종로 하림각에서 열린 중앙종무기관 직원들과의 오찬에서 “현지 외국인들을 선발, 1년 정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 다음 포교사로 임명해 자국에서 포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계종 포교원은 종령 개정 및 교육 교수진 구성 등 외국인 포교사 양성에 따른 각종 계획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조계종은 소수의 외국인을 명예포교사로 활용하고 있으나, 교포 등 재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포교에 머물고 있는 해외포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명우 기자

중앙·전국신도회 통합선언

29일 원칙·방향·절차등 계획 발표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사단법인 전국신도회가 통합을 선언한다.

지난 3월 20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배석한 가운데 통합에 합의한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는 29일 조계사불교대학 강당에서 통합을 선언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양 신도회는 연내 통합 원칙과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통합 방향, 추진 경과 및 절차,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는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에는 중앙신도회 박창기 회장과 전국신도회 선진규 회장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으며, 추진위원회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총무부, 포교인 관계자 3인과 양 신도회 회장단에서 각각 3인씩 모두 9명으로 구성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중앙신도회측은 4월 초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여의구, 이연숙 부회장과 최연 사무총장을 추진위원으로 추천하고, 5월 17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전국신도회측은 지난 10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손안식, 한이우, 이세호 부회장을 추진위원으로 선출했다.

박봉영 기자

청와대 불자회 회장

조운제 경제보좌관



청와대불자회는 24일 임시 운영회의를 열고, 제7대 회장에 차관급인 조운제 경제보좌관(51·사진)을 위촉했다.

청와대불자회는 이에 따라 다 음달 임시총회를 열어 조운제 신임회장의 위촉을 결의하는 한편,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 등에 참가하기로 했다.

조운제 신임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조세연 구원 부원장,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철우 기자

‘연대’ 만평

심민섭



징계자 사면 촉구 결의문 채택

승가사 시주사건 중단차원 대응 필요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회의

조계종은 23일 대구 인터불교호텔에서 14개 교구본사 주지가 참석한 가운데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열고 ‘중단 대화합을 위한 사면·복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사면에 대한 윤법상의 문제 해결 방안 마련과 사면대상자 선별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첨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SK의 승가사 시주와 관련해 구속된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사건에 대한 중단 차원의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정식적인 시주금인대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불교계가 뇌물을 받은 모양새가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대구=박원규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대표전화: 02-737-8881

한일불교문화 교류대회. 5월12~14일 제주도서. 불교대학장 법산스님과 나가이삼고 스님의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중단 대화합을 위한 사면·복권 촉구 결의문

우리 종단은 '94년 중단개혁과' 98년 중단사태 이후 5년여 만에 중단 안정을 이룩하고 이러한 중단 안정의 기반 위에 제31대 총무원장을 선출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중도 통합을 이루지 못한 불안한 안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중정예하께서는 신년 초 해인사에서 열린 신년하례에서 법어를 통해 “진정한 화합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여 사면 대상자들을 적극 사면토록 해 중단 구성원 모두가 함께 화합하여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교시하셨으며, 제31대 총무원장 취임식 법어를 통해서도 “참회를 통해 지난날 허물을 깨닫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겐 사면 복권의 길을 열어 중단의 중흥불사에 동참케 해야 할 것이다”라고 재차 교시하시어 승가의 제1의인 “화합”을 강조하셨다.

그리고 원로회의에서도 중정예하의 교시를 받들어 “본래는 일불제자요, 불조혜명을 이어가야 할 도반의 본분으로 돌아가 진정한 참회와 대승적 화합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우리 종단에 국민과 중도들을 실망시키는 갈등

과 분열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원로들의 애정을 심분 유념해,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총회 등 해당 중무기관들은 중단 대화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조속히 단행해 줄 것을 당부”하는 유시를 내리셨다.

또한 제155회 정기중앙총회에서는 중앙총회의원 만장일치로 사면촉구를 결의하였으며, 제31대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중정예하와 원로대덕의 뜻을 받들고, 원용살림을 통한 중단 화합과 발전을 위한 소신에서 사면복권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교구본사주지 일동은 중정예하와 원로의원스님들, 중단 대표자인 총무원장, 종단의 대의기구인 중앙총회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징계자에 대한 사면 복권이 종단의 진정한 화합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고 원로대덕의 뜻을 받들어 우리 본사주지들도 수회 동참할 것을 밝히며, 불기 2506(1962)년 통합중단 출범 후 멀린 등 각종 징계를 받은 승려 중 수행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 참회와 개전의 정이 분명하고 복적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일대 사면복권을 단행해 줄 것을 촉구 결의하는 바이다.

불기 2547년 4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일동